

# 한경국립대학교 교수회장 출마 소견서

1. 성명 : 강 기용
2. 소속 : 웰니스산업융합학부

존경하고 사랑하는 한경국립대학교 교수님들께  
우리 대학은 2023년 3월 통합의 과정을 거쳐 '한경국립대학교'로 새롭게 개교하여 걸음마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래를 개척하고 새롭게 한 걸음 한 걸음의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 교수회의 역할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 고민하였습니다.

우리 대학 발전과 교수님들의 교육 및 연구 활동 지원에 교수회의 역할로서 가장 우선 하여야 하는 것으로 '소통과 대화'라는 고민의 답을 얻었습니다. 이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소통과 대화'를 경험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출마 소견을 올립니다.

1. 대학 본부와의 지속적 관계 구축과 소통 채널 유지에 의한 '협력과 견제'입니다.  
= 대학의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해 대학 본부와 상시 소통하고 대화하여 교수회의 의견을 건설적으로 제시하며, 대안을 모색하고, 협력/견제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2. 교수님들의 의견 수렴 및 대변하는 다양한 '소통 창구'입니다.  
= 각 전공, 학부, 연구 분야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교수님들의 의견을 상시 수렴할 수 있는 공식적/비공식적 채널(온라인 게시판, 설문, 소규모 간담회 등)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3. 교수회의 및 대화의 질적 향상과 대학 발전의 목표를 명확히 공유하여 교수회의 참석자들이 충분히 논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소수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교수회의 '소통과 대화'가 단순히 정보 전달을 넘어 대학 행정과 운영에 반영되고, 대학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소통과 대화'를 통하여 소수의 의견이라도 그것이 가진 잠재적 가치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4. 마지막으로 2014년 이후 교수회는 상조회를 겸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의 '희노애락'을 항상 같이 할 수 있는 교수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기쁨을 배가 되어 넘치고, 슬픔은 나누어 줄일 수 있는 교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처처불상(處處佛像) 사사불공(事事佛供)'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모든 일을 불공드리는 마음으로 공경심과 정성을 다하여 해나가자"는 뜻으로 우리 대학의 미래를 준비하고 혁신적인 교육과 연구를 통해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수님들의 지위, 교권, 복지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교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